

6. 29 민주화 선언문의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

최 성 희
(고려대)

1. 서론

1987년 6월은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 정치 종식을 열망하던 시민 1백여만 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보름 이상 전국에서 이어졌다. 이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로 하여금 6. 29 민주화 선언문을 발표하게 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6. 29 민주화 선언문으로 노태우 대표는 국민의 신임과 인기를 얻었고,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중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6. 29 민주화 선언문은 국민을 저항에서 합의로 전환시킨 중요한 정치 연설문이라 할 수 있다.¹⁾ 그러나 6. 29 민주화 선언문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교차한다. 이 선언문

1) 이 선언문의 내용은 (1)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 (2)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들 석방 (4)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자유언론의 창달 (6)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이다(노태우 1987).

은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군사 독재 정권의 “항복”(노태우 1987: 34) 문서라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복을 가장한 합리적 정치 담화이자, “국민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제한된 민주화를 통해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계산”(김영명 1999: 265)이 배태된 연설문이라 평가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역사 해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6. 29 선언문의 정치 담화 이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탐색하고,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당시 두 가지 영자 신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6. 29 민주화 선언문은 같은 날 한국의 모든 신문사에서 연설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일보에 발표된 연설문을 원천 텍스트로 사용하는 한편, 번역 텍스트로는 6월 30일에 간행된 『코리아 헤럴드』(*The Korea Herald*)와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의 번역문을 사용하기로 한다.²⁾

신문에서 정치 연설문이 발표되는 경우, 그 텍스트는 제도권 내부의 정치, 정책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 대중 매체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Said 1993). 그런 과정을 통해 신문은 지배 정치 층의 입지가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현실과 다른 새로운 가상적 실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Fairclough 1995). 신문사에서 정치 기사를 번역하는 경우에도 텍스트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 번역은 지배 문화의 정권을 지지하는데 사용되고, 번역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내면화된 사회적 제약을 재생산하면서 정치권력에 순응하게 된다(Loupaki 2010).

본 논문의 분석 대상 텍스트들은 모두 언론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하에서 제작되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것을 회유했다(안종묵 2002). 정부 검열 하에서 모든 신문이 발간되었고, 언론 통제합과 언론 기본법 제정 등 언론을 조종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만들어졌다(정진석 1990). 영자 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 역시 정부를 강력히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³⁾ 이 두 영자 신문이 피동

2) 1987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던 영어 종합 일간지는 이 두 신문이 전부이므로 연구 대상으로 정한다.

3) 1987년 당시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일보에서 출간되었으며, 코리아 헤럴드는 관변단

적 역할을 하는 데는 그 창간 취지와 신문사 내 조직 구성, 그리고 운영 방법상의 특성이 주원인이었다. 두 신문은 모두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세계에 대변하는 취지에서 정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또한 신문사의 조직 구성과 운영 면에서도 두 신문에서는 한국인이 주요 편집자로서, 사건을 뉴스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이자 필연적인 틀(frame)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게이트 키퍼’를 관할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자연스럽게 현 정부에 대한 기사를 우호적으로 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전수진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6. 29 민주화 선언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번역에 그대로 전달되었는가는 하나의 큰 의문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영자 신문의 목표 독자가 원천 텍스트의 목표 독자와는 다르며, 영자 신문 번역자들이 원천 텍스트의 저자들과 다르다는 것은 번역본이 원문과 다를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우선 6. 29 선언문은 한국 국민들에게 민정당의 새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자 제작되었다. 이와 다르게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의 목표는 설득보다는 정보 전달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었다. 영자 신문 목표 독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세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외국인들로, 4) 두 영자 신문은 이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 한편 번역가들의 의도성이나 임의성도 번역문의 이데올로기를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들은 한국의 지식인으로서 반정부적인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변형할 수도 있고, 혹은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변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6. 29 선언문이 영자 신문으로 번역되는 양상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치 연설문이 대중 매체로 번역되는 경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문이 번역을 통해서 정치 연설문의 이데올로기를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을 첨가하거나, 다른 말로 변형시키면서 재 맥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chäffner 1997, 2012). 본 연구는 이처럼 다면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 29 민주화 선언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두 영자 신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비평적 담화 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체인 무역협회에서 출간되었다(홍순일 외 2003).

- 4)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어 신문의 실제 독자층은 대략 4:1의 분포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홍순일 외 2003).

2. 이론적 배경

정치 연설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연설문을 구성하는 언어에 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정치인들은 보다 효과 있는 연설을 위해 적절한 수사법을 추구한다. 이때 단어, 표현, 진술 등은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Pecheux 1982). 정치인이 선택하는 단어와 문법, 구문은 함축적으로 그 정치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이용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때 언어는 어휘적, 구문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사용된다(Chilton 2004). 그러므로 정치 연설문의 언어는 언제나 정치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언어의 관계는 페어클러프가 비평적 담화 분석을 통해 천착해온 주제로, 이는 본 연구에서 6. 29 선언과 그 번역본의 언어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페어클러프가 주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개념은 알튀세(Althusser)와 그람시(Gramsci) 같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입장을 기초로 한다(Fairclough 1992).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의 지배 종속 관계에 내재된 일종의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으로 간주한다(Thompson 1984: 81).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정치 권력자들이 조작해낸 일종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증대하기 위해 현실을 임의로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본다(Richardson 33).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페어클러프는(1989, 1992) 이데올로기를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의 동의를 유도할 때 사용하는 최상의 도구라 설명한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담화 관행(discourse practice) 속에서 작동하고 당연시되면서,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고, 또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텍스트 속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암묵적인 전제로 자리하면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 지배 관계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힌다(Fairclough 1995). 이데올로기에 관한 페어클러프의 관점을 기초로 본 연구는 6. 29 선언문에서 당시의 현실 상황이 저자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어떻게 사용되며, 저자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번역문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페어클러프(1992, 2003)는 언어를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담화’ 개념을 도입한다. 담화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일관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언어이다. 담화는 세계의 여러 측면을 표상하고, 사회에서 형성되며, 사회의 다양한 규범이나 제도에 종속된다. 페어클러프(1989, 1992, 1995)는 담화의 세 가지 요소로 텍스트, 담화 관행, 그리고 사회 문화적 관행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문어로 된 텍스트와 구어로 된 텍스트를 이른다. 담화 관행은 텍스트의 생산과 분배, 소비과정을 포함한다. 사회 문화적 관행은 담론 관행과 텍스트를 조형하는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다. 페어클러프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다시 자신의 비판적 담화 분석에 포함되는 세 단계의 개념과 조응시킨다. 여기서 비판적 담화 분석의 세 단계란, 텍스트에 대한 기술(분석) 단계, 텍스트와 담화 관행 사이의 관계 해석 단계, 그리고 담화 관행과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6. 29 선언문과 그 번역본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의 담화 분석 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텍스트에 관한 기술, 즉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며,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

텍스트 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페어클러프(1989)는 권력 관계를 재현하는 언어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한다. 그는 담화가 권력자의 편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약하는데 활용된다고 보았다. 페어클러프는 이러한 제약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담화 속에 스며들어 언어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언어를 형성하는 형식적 특징을 세 가지 유형의 가치로 구분하는데, 이는 경험적 가치, 관계적 가치, 표현적 가치이다. 경험적 가치는 자연계나 사회 세계에 대한 텍스트 산출자의 체험 혹은 경험이 표현되는 흔적이자 단서이다. 경험적 가치는 “경험을 재현하는 경험 내용, 세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텍스트 산출자의 신념을 추적하는 역할”(Fairclough 1989:112)을 한다. 관계적 가치는 담화에 내재한 사회적 관련성에 대한 흔적이자 단서이다. 이는 “텍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관계를 추적하는 역할”(ibid. 112)을 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적 가치는 텍스트가 다루는 현실에 대해 텍스트 산출자가 내리는 평가에 대한 흔적 및 단서이다. 이는 “그 산출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연관된다”(ibid. 112). 페어클러프는 담화가 동시에 이들 가치를 하나 이상 지닐 수도 있음을 밝혀두었다⁵⁾. 이를

5) 페어클러프가 제시하는 이러한 3가지 가치 측면의 분석 방법은 할리데이 Halliday의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의미차원	형식적 가치	구조적 효과
내용	경험적 가치	지식/ 신념
관계	관계적 가치	사회적 관계
주체	표현적 가치	사회적 정체성

표 1. 언어의 의미 차원, 형식적 가치, 구조적 효과 관계(Fairclough 1989)

본 연구는 언어의 경험적 가치, 관계적 가치, 그리고 표현적 가치가 6. 29 선언문의 어휘와 문법 구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탐색하고 그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경험적 가치 측면에서는 6. 29 선언문의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재현하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는 의미를 가진 어휘들, 반복적인 어휘들, 은유, 문법적으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피동형 구문 등이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양상을 탐색하고 이러한 양상들이 두 가지의 영자 신문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알아본다. 관계적 가치 측면에서는 저자가 국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아봄, 비 격식적인 어휘와 국민을 호명하는데 사용되는 어휘, 그리고 문장의 서법 구문을 살피고 그 번역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적 가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저자가 평가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6. 29 선언문에 나타나는 평가 어휘나 평가 구문이 저자의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양상을 탐구하고 그 양상이 어떻게 번역에 반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번역 과정과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자 신문에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의 번역 양상을 각각 이데올로기 반영, 삭제, 변형이라는 3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분석에서 편의상 코리아 헤럴드는 영어 약자인 KH로, 코리아 타임즈는 KT 로 명기되었다. 그런데 이들

체계 기능 문법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할리데이는 의미 차원에서의 담화의 3가지 측면을 경험적 의미(experiential meaning), 대인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로 구분하였다(Butt et al. 5-6). 페어클러프는 할리데이의 대인적 의미 개념을 관계적 가치와 표현적 가치로 세분화하였다.

번역본에는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결함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오역 부분은 분석 대상에서 가능한 한 제외되었다. 또한 부록으로 첨부된 본문의 일부분은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하고 말줄임표(...)로 표시하였다.

이제까지 정치 연설문의 영자 신문 번역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양상에 대하여, 비평적 담화 분석을 기초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뉴스위크지나 영어 방송을 중심으로 영한 번역 연구가 주를 이룬다. 강지혜(2008a, 2008b, 2010)와 Kang(2004, 2007)은 뉴스위크와 CNN의 한국어 번역을 제도 번역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며, 송연석(2013)은 영어 뉴스의 한국어 편역 문제를 제도 번역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최성희(2013)는 뉴스위크 한국판에 나타나는 식민 담론의 변형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박소영(2007)은 VOA 뉴스의 한국어 번역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Kim(2003)은 뉴스위크와 코리아 헤럴드의 번역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 비평적 담화 분석 방법에 기반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 연설문의 영자 신문 번역의 이데올로기 변형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와 매우 다르다. 한편, 정치 연설문에 관한 한영 번역 연구로는 Choi(2013)의 연구가 있다. Choi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년 연설문과 청와대 홈페이지의 영어 번역을 비교 분석한다. Choi의 연구는 코퍼스를 이용한 비평적 담화 분석을 시도하는데, 그의 방법은 비평적 담화 분석의 틀을 따라 텍스트의 경험적 가치, 관계적 가치, 표현적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본 연구와 차이가 난다.

3. 분석과 논의

3.1. 경험적 가치

3.1.1. 어휘적 측면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어휘를 선택한다(Fairclough 1989). 이때 그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현실을 옳고 그른 것, 혹은 선하고 악한 것 등으로 이분화하는데, 이렇게

이분화된 이데올로기는 어휘에 내재화된다. 6. 29 선언문에도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 그리고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단어들이 분류되어 나타난다. 저자⁶⁾는 자신의 생각이나 정책에 관련된 현실 상황을 긍정적인 어휘로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에 배치되는 상황은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다음 ST1와 ST2에서 저자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라는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는 어휘로 현실을 이분화해서 재현한다. ST1에서 올바르다는 의미를 함의하는 “정대한”이라는 어휘는 자신의 선거관리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반면 ST2에서 저자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의하는 “모순”이라는 어휘를 당시 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 사용한다. 이는 저자가 자신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반면, 당시의 정치 상황은 부정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페어클러프는 “부정적인 말은 그 부정어들과 정확하게 대립하는 긍정적인 말들을 부각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한다”(Fairclough 1989: 154)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순”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이 부정적인 말들과 대조되는 “정대한” 저자 자신의 정책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ST1: 또한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개표 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 **정대한** 선거관리가

KH1) Maximum fairness should be guaranteed in the election management ...

KT1) The elections should be managed in a fair and **just** manner...

ST2: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KH2: We also have to severely deal with chronic corruption in our society.

KT2: ...chronic irregularities and **absurdities** remaining in our society,...

그런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저자의 의도는 번역에서 변형된다. KH1은

6) 본 논문에서는 6. 29 선언의 저자를 노태우가 아닌 ‘저자’로 명명한다. 그 이유는 6. 29 선언문은 여러 사람이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의 초안은 박철언이 작성했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당시 대학 교수들이 최종 문건으로 완성하였다(손구선 1992).

“정대”라는 원문의 단어를 생략한다. 반면 KT1에서는 이를 “just”(올바른)로 번역하여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한편, KH2에서는 원문의 “모순”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반면, KT2에서는 원문이 “absurdities”(어리석은 부조리함)이라는 영어 문맥상 적합하지 않은 표현으로 바뀌어서 원문의 이데올로기가 변형되었다.

또한 저자는 “대단결”과 “분열”이라는 의미상 양립하는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정치 상황을 정 반대로 범주화한다. 다음 ST3에서 저자는 “대단결”이라는 어휘로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여기서 “대단결”은 ST4의 “분열”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어휘와 정면 배치됨으로써 그 긍정적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ST4의 “분열”이라는 어휘는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는 저자가 당시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T3: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합니다.

KH3: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KT3: we have to gain reconciliation and **grand union**...

ST4: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KH4: as a result of **division** in national opinion.

KT4: if public opinion is **split**.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번역문에서 대부분 전달되지 않는다. KH3에서는 원문을 “unity”(단결)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원문의 “대단결”이라는 표현보다 그 의미가 축소된다. KT3는 이를 “grand union”(대단결)이라는 어휘로 그대로 번역하여서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한편 ST4의 “분열”이라는 어휘에 관해서, KH4는 “division”(분리)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원문에서의 부정적인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다. KT4의 “split”(분열)이라는 어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이 상치하여 대립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므로, 원문의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반영한다. 어휘에 나타나는 경험적 가치의 이데올로기는 다음 어휘 반복에서도 볼 수 있다.

비슷한 어휘가 텍스트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저자가 현실 상황을 특

정 이데올로기에 연관시켜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airclough 1989, 1992). 저자의 미래 계획을 수식하는 “안심”이라는 어휘는 저자가 대권을 잇는다면 그 미래는 안전하다는 암시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므로 “안심”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저자의 편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ST5: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 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KH5: In such a stable social environment, all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with pride and animation.

KT5: All citizens will then live bright lives with pride and ease under a stabilized social atmosphere.

ST6: ...근로자, 농민은 안심하고 일하며,...

KH6: ...workers and farmers should have stable jobs,...

KT6: ...workers and farmers to work with a comfortable mind,...

그런데, 이러한 어휘들은 번역본에서 다르게 변형된다. 원문의 “안심”이라는 단어를 KH5에서는 생략하였고, KT5에서는 “ease”(편안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 ST6의 “안심”이라는 어휘는 KH6에서는 “stable jobs”(안정 직)이라는 어휘로 번역하여 원문에 나타나는 저자의 이데올로기를 변형한다. 그러나 KT6에서는 “comfortable”(편안한)이라는 어휘로 번역되어서 원문에 내포된 저자의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한다. 번역상의 차이는 다음 은유에서도 나타난다.

은유는 경험의 한 가지 측면을 다른 말로 재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저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Fairclough 1989). 은유는 정치 연설문에서 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데 쓰이는 주요한 정치 수사법이기도 하다(Chilton 2004). 다음 ST7의 “뜨거운 피”라는 은유는 전쟁에 대한 국민의 공통적인 두려움을 환기하여서 국민들이 저자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⁷⁾. 한편,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데 쓰이는 은유는 저자

7) 1987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었다. 당시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여전

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상황을 ST8에서 “역사의 분수령”이라 비유하는 어휘에서도 볼 수 있다.⁸⁾ 이 어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시점이며 이 역사를 책임지는 주역은 바로 국민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국민이 역사라는 공통된 기억과 역사적인 책임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의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진정한 관심사는 단순화되어 배경화된다”(이원표 2001: 458). 이 어휘는 저자의 차기 집권 의도를 투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언어 전략이다.

ST7: 조상과 선열의 **뜨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

KH7: It was built with the **warm blood** of our ancestors...

KT7: ... this country, sanctified with the **blood** of our ancestors...

ST8: ...**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KH8: ...at this point, a **historical watershed**...

KT8: ... at this moment-a **turning point in our history**.

그런데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각각 다르게 번역되었다. ST7의 “뜨거운 피”라는 부분은 번역 과정에서 변형된다. KH7에서는 원문의 “뜨거운 피”를 “warm blood”(온혈)로 직역하였으나 이는 원문의 맥락을 전달하지 못하는 어색한 영어 번역이다. 한편 KT7에서는 이를 “blood”(피)라고 번역하여 원문의 전쟁을 암시하는 효과를 전달하지만, 원문의 “뜨거운”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원래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한편, ST8의 “역사의 분수령”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KH8에서는 “a historical watershed”(역사적인 분수령)으로 오역하여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변형시켰다. 한편 KT8은 이를 “turning point in our history”(우리 역

히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우려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반정부, 반체제 운동의 주역들이 반미사상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 염려했다(어수영 외 1987).

- 8) 이원표(2001)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언어 조작을 ‘신화 이야기하기’라고 설명한다. 우리 한국 민족이 역사적으로 외세의 잦은 침략 속에서도 국토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킨 위대한 민족이라는 신화는 오랫동안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협조와 참여를 요청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사 속에서의 전환점)이라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3.1.2. 문법적 측면

정치인은 현실의 경험적인 측면을 묘사할 때 문법 구문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투영한다. 페어클러프(1989)는 문법 구문에 내포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동사성 transitivity을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절을 경험적 의미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본다. 어떤 현실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묘사할 때, 이 사건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 주체가 명시된 행위 사건으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숨겨진 상태인 결과 상태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의미가 결정된다(Fairclough 1989). 페어클러프는 특히 행위주를 생략하는 문장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건의 인과 관계나 행위주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역할”(ibid. 123)을 한다고 보았다. 다음은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이다.

다음 ST9에서 저자는 직선제 개헌에 대해 언급한다.⁹⁾ 그런데 저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는 행위 주체를 생략하여 개헌 행위에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처리한다.

ST9: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KH9: rival parties should revise the Constitution to provide fo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KT9: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into a system led by a president directly elected by a consensus as soon as possible,...

그런데 ST9은 번역 과정에서 원문과 다르게 나타난다. KH9에서는 행위주를 “rival parties”(양당)으로 명시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책임을 정당에 돌린다. 이는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변형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KT9은 원문을 수동형 문장으로 전환하면서 행위주를 모호하게 하여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9) 당시 직선제 개헌을 하는 주체는 국민 모두였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당시 야당과 일반 국민이 요구한 핵심 사항이었다(김영명 1999).

또한, 행위주가 삭제되는 문장은 행위 주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감추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한다. 다음 ST10에서 저자는 강력한 사회 정화 계획을 언급한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통제한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행위주가 없는 문장으로 구조화되어있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저자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또한, 다음 ST11에는 “소탕하고”, “단속하고”, “과감히 시정하는” 폭력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도 저자 자신의 책임 소재는 최소화된다.

ST10: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KH10: ... we must promote drastic social reforms to create a bright and clean society.

KT10: ...bold social purification measures are needed to build a bright and clean society.

ST11: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KH11: To guarantee a happy life for the people, we have to crack down on gangsters, robber, thieves and others threatening citizens' life. We also have to severely deal with chronic corruption in our society.

KT11: To ensure that all citizens enjoy happy, comfortable lives, all elements disturbing daily life such as hooliganism, robberies and thefts, and all chronic irregularities and absurdities remaining in our society, must be cleaned up.

그런데 ST의 이데올로기는 다르게 번역된다. KH10은 행위주체를 “we”(우리)로 명기해서 원문에 없던 행위자를 도입한다. 이는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변형시킨다. 반면, KT10는 문장을 수동형으로 변형시켜서 주어 없는 구문으로 만들어 원문의 의도를 전달한다. ST11 역시 번역 과정에서 그 이데올로기가 변화한다. KH11은 “we”(우리)라는 단어를 새로 도입하여 원문의 내용을 변형한다. KT11은 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수동형 문장으로 바꾸

어서 행위주체를 모호하게 하는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다음 피동형 문장에서도 발견된다.

행위자가 생략되는 피동형 문장 역시 주어의 행위성을 축소하거나 감추는 역할을 한다.¹⁰⁾ 다음 ST에서 저자는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피동형 문장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행위의 주체인 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ST12에서는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주체가 부재함으로써 저자의 정치적인 책임이 축소된다. 또한 ST13에서 저자는 새로운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피동형 문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행위성을 축소한다.

ST12: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KH12: ... we have to create a political atmosphere...

KT12: ...sou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fully guaranteed.

ST13: ...이에 따른 세부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KH13: ... I will put forth additional details.

KT13: ...details will be worked out immediately.

그런데 ST 저자의 의도는 번역과정에서 변형된다. KH12에서는 행위주체에 “we”(우리)라는 주어를 넣어서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주체를 ‘우리’로 표시한다. 그 결과 ST저자의 이데올로기는 변형된다. 반면 KT12에서는 이를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형으로 만들어서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한편, KT12의 경우는 수동형을 사용해서 행위주를 감추어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KH13은 번역과정에서 저자를 지칭하는 “I”(나)를 주어로 도입해서, 저자를 실제적인 행위자로서 묘사한다. 그 결과 KH13은 원문과 다르게, 저자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부각시킨다. 한편 KT13은 수동형 구문으로 전환하며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다음 예에서도 저자의 물리적 행위성과 주체성을 축소하는 피동형 문장이

10) 영어와 마찬가지로 국어의 피동은 동사의 변화와 관계있다. 동사의 굴절형 “...되다”는 넓은 의미에서 피동형으로 간주된다. 국어의 피동법은 문장의 주어로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이 제힘으로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이나 작용을 묘사하는 방법이다(고영근 외 2008).

나타난다. ST14의 “생각됩니다”라는 표현은 저자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저자는 자신이 계획하는 정책 구상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ST14: 시, 도단위 지방의회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H14: **I think** the creation of local councils at city and provincial levels must be studied and realized soon.

KT14: the election of assemblies for special cities and provinces should also be studied and promoted expeditiously.

그런데 이러한 원문의 이데올로기가 번역문에서는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KH14에서는 주어를 “I”(나)로 명시한다. 이는 원문에서 저자가 자신의 주체성을 축소하고자 했던 의도를 삭제하고, 오히려 그를 행위의 주체로 부각시켜서 저자의 정치권력에의 의지를 강조한다. 반면 KT14에서는 원문의 “생각됩니다”라는 문법 요소를 완전히 생략하였다.

6. 29 선언문의 담화를 경험적 가치에서 분석한 결과, 저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현실을 이분화하여 묘사하는 방법, 동일 어휘 반복, 은유 등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시키고자 함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가 없는 문법 구문이나 피동형 구문을 사용해서 자신이 제시하는 미래 정책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번역 결과를 종합하면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의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이 다음 표에서처럼 상이하게 나타난다.

	KH (<i>The Korea Herald</i>)	KT (<i>The Korea Times</i>)
이데올로기 반영		1, 3, 4, 5, 6, 8, 9, 10, 11, 12, 13
이데올로기 삭제	5, 1, 2	14
이데올로기 변형	3, 4, 6, 7, 8, 9, 10, 11, 12, 13, 14	2, 5, 7

표2. 경험적 가치의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

위와 같이, 코리아 헤럴드의 번역이 코리아 타임즈의 번역보다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리아 타임즈의 번역이 코리아 헤럴드보다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반영한다.

3.2. 관계적 가치

3.2.1. 어휘적 측면

비평적 담화 분석 방법을 통한 언어의 관계적 가치 분석은 6. 29 선언문에서 저자가 국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를 보여준다. 6. 29 선언문에는 저자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권위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우선 저자는 친밀하게 느껴지는 일상적인 대화체와 “우리”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려 한다.

정치인들이 일상 대화체를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이 보통 사람들을 대표하는 입장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다(Fairclough 1995).¹¹⁾ 다음 ST에서 저자가 쓰는 “판을 치게 되고”, “등에 업고”, 그리고 “한데 모아”라는 일상적인 대화체 어휘들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동질감을 준다.

ST15: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KH15: ... **create** unrest and disorder,

KT15: ...mass agitation which **will result in** disturbances and disorder...

ST16: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KH16: **With** the people's desire **in mind** ...

KT16: ... **on the basis of** your wishes ...

ST17: 국민적 슬기를 **한데 모아**...

KH17: ... **by pooling** the wisdom of the nations...

KT17: (생략)

11) 당시 노태우 대표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때마다 언급한 자신이 정체성을 지칭하는 표현은 ‘보통사람’이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신의 시대가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 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과 동일시하여 국민들로부터의 심리적 지지를 얻고자 했다(노태우 1987).

그러나 이러한 비격식적 어휘들은 번역 과정에서 대부분 문어체로 변형되어 저자가 의도하는 국민과의 친밀한 관계 정립이라는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다. ST15의 “판을 치게 되고”를 KH15는 “create”(창조하다)로, KT15는 “will result in”(초래하다)라는 문어체로 변형한다. ST16의 “등에 업고”라는 구어체도 KH16에서는 “with... in mind”(감안하여)라는 문어체로, KT16에서는 “on the basis of”(기초로 하여)라는 문어체로 바뀐다. 한편, ST17의 “한데 모아”는 KH17에서는 “by pooling”(결집시켜서)라는 문어체로 변형되는 반면, KT17에서는 생략되어 원문에 나타나는 저자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삭제한다. 국민과 친밀한 관계 정립을 위한 어휘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6. 29 선언문의 “우리”라는 어휘는 저자와 국민을 동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페어클러프는 “우리”라는 어휘가 국민과 저자 사이의 “계층 관계나 힘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담화적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1992:201).¹²⁾ 다음 ST18의 “우리”는 국민의 신뢰와 연대감을 형성시키려는 저자의 의도를 보여준다.

ST18: 우리 모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간직한 채 청년은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KH18: While retaining a sacred right to vote, youths should work hard to realize their ideals,...

KT18: I would like to urge the youths to increase their capabilities to achieve their ideals,...

그런데 “우리”는 두 번역본에서 생략되어 국민과의 연대감을 모색하는 저자의 의도를 삭제한다. 오히려 KH18는 저자의 지배 권력을 강조하는 구문 형태로 변형되는데, 문장의 주어를 “youth”(젊은이)로 하고 이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해야 한다)를 첨가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구문으로 바

12) 페어클러프(1989)는 영어의 ‘우리’we 라는 표현의 기능을 ‘포괄적인 용법’과 ‘배타적인 용법’으로 나눈다. 포괄적인 용법은 계층 및 거리감을 줄이는 표현으로 너와 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배타적인 용법은 저자와 저자가 속한 다른 집단만을 포함하여, 듣는 사람이 배제되어있는 용법이다. 이는 우리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문 ST에서의 “우리”는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았을 때, 투표권을 가지는 저자와 민정당의 정치인들,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핀다. 또한 KT18에서는 “우리”라는 어휘 대신 “I would like to urge”(나는 권고하고자 한다)라고 번역한다. “나”라는 일인칭 대명사와 “권고하다”라는 동사가 이어지는 이 문형은 원문과 다르게 저자의 권위적 태도를 설정한다. 여기서 저자는 국민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하달하는 강력한 정치인으로 재현된다.

그런데 저자는 외견상 국민과의 동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다음 ST의 “국민 여러분”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저자는 국민과의 거리를 만든다.¹³⁾ 국민을 호명하여서 저자는 국민에게 기존에 있던 자신의 특권적인 권위와 위상을 재확인한다. ST에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명이 다음 표와 같이 4회 나온다.

번호	ST	KH	KT
19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생략	Fellow citizens,
20	국민여러분!	생략	Dear fellow citizens,
21	국민 여러분!	생략	Dear fellow citizens,
22	국민여러분!	생략	Dear fellow countrymen,

표 3. 국민에 대한 호명

그런데 KH에서 “국민 여러분”이라는 어휘는 모두 생략되어서 저자가 국민과의 위계를 재확인하는 의도를 무화한다. 반면 KT19에서는 ST19를 “fellow citizens”(동료 시민 여러분)으로 변형한다. 이후 KT20, KT21, KT22에서는 원문의 “국민 여러분”이라는 어휘를 보다 친밀하고 유대감이 있는 표현인 “dear fellow citizens”(친애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혹은 더 나아가 “dear fellow countrymen”(친애하는 동료 국민 여러분)이라는 어휘로 번역한다. 그리하여 KT는 저자를 훨씬 국민을 존중하고 유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 변형시킨다.

3.2.2. 문법적 측면

저자와 국민간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는 서법(mode)에서도 나타난다. 페어클

13) 정치인의 연설에서 호명하기(addressing)는 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수사적 장치이지만, 동시에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국민을 호명하면서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과 자신 사이의 위계관계도 재정립한다(이원표 2001).

리프(1992)는 서법을 언어의 관계적 가치와 관련되어 저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계를 나타내는 텍스트 요소로 본다.¹⁴⁾ 저자의 권위와 권력은 ST23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라는 표현은 저자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는 권위를 나타낸다. 화자의 권위는 ST24에서 저자가 국민에 요구를 하는 우회적인 명령문을 통해서도 강하게 예시된다. ST24의 “바라마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요구하는 우회적 명령이다.

ST23: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KH23:... **let me make it clear** I will resign from all of my public offices,...

KT23: **I hereby declare** that I will resign from all public positions...

ST24: 한민족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민적 슬기를 한데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KH24: **Let's** show the world that our history is developing, not by going backward, but by pooling the wisdom of the nation so that we can contribute to world history.

KT24: **We have to** show the world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does not retreat but progresses and we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the world.

이러한 권위의 표식들은 번역과정에서 변화한다. ST23의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라는 표현은 KH23에서 국민의 허락을 구하는 의미의 표현인 “let me make it clear”(제가 확실히 하도록 해주십시오)로 변형되어 원문에서 나타났던 저자의 절대적인 권력 효과를 완화한다. 이에 반해 KT23은 “I hereby declare”(나는 이에 선언합니다)로 번역하여서 저자의 권위 의식을 반영한다. 반면, ST24의 경우 권위적인 저자의 말은 번역 과정에서 상당히 완화된다. KH24에서는 “let's”(함께...시다)라는 청유형 표현으로 대체되어서 원문의 불균형한 힘

14) 서법은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세 종류로 나뉘며 서법을 통해 나타나는 위계는 참여자들 권력 관계의 위계와 정비례한다.

의 관계가 상쇄되고, 저자를 보다 국민에 가까운 지도자로 변형한다. 이와 유사하게, KT24도 “we”(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자를 국민과의 결속감과 유대감을 모색하는 지도자로 변형한다.

관계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6. 29 선언의 담화는 대중에 영합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국민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계적 가치의 이데올로기 번역 결과를 종합하면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의 이데올로기 번역 전략이 다음 표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KH (<i>The Korea Herald</i>)	KT (<i>The Korea Times</i>)
이데올로기 반영		23
이데올로기 삭제	19, 20, 21, 22	17
이데올로기 변형	15, 16, 17, 18, 23, 24	15, 16, 18, 19, 20, 21, 22, 24

표 4. 관계적 가치의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

분석 결과, 코리아 헤럴드가 코리아 타임즈 보다 전반적으로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코리아 타임즈는 코리아 헤럴드보다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신문의 번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변형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3.3. 표현적 가치

3.3.1. 어휘적 측면

페어클러프(1989)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담화의 표현적 가치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¹⁵⁾ 표현적 가치는 실세계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입장과 권위에 관련되며, 표현적 가치는 “이념적 사각형”의 개념, 즉 ‘긍정적 타인 평가’와

www.kci.go.kr

15) 표현적 가치는 저자가 어떤 인물이나 사물, 행동, 사건, 상황, 관념들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여기는 것에서 나타난다(Thompson 2004).

‘부정적 자기 평가’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van Dijk 1996). 6. 29 선언문에서 저자의 정체성은 그의 담화 속에 표현된 정치와 사회, 그리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만들어진다.

저자는 자신의 정책과 정치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다음 ST25에서 내각책임제를 수식하는 “민주 책임 정치”라는 어휘는 저자가 지지했던 내각책임제를 긍정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 ST26의 “자율”이라는 어휘는 긍정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강조하여 저자가 국민 모두로부터 자신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준다.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민주적인 정치가로 규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ST25: 민주, 책임 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KH25: ...the parliamentary system,... can be most faithful to democratic and responsible politics

KT25: ...the government mechanism under which most Cabinet members are ...faithful to democratic politics...

ST26: 사회 각 부문의 자치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KH26: ...the autonomy of all social...

KT26: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self-rule ...

그런데 ST는 번역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형된다. ST25의 “민주, 책임 정치”는 KH25에서 “democratic and responsible politics”(민주 책임 정치)로 번역되어서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반면, KT25에서는 원문의 “책임”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서 “democratic politics”(민주 정치)로 번역되어 원문의 이데올로기가 변형된다. 한편, ST26의 “자율”은 KH26에서 생략되어 원문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는 무화된다. 반면에 이 어휘는 KT26에서 “self-rule”(자율)이라는 어휘로 직역되어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

3.3.2. 문법적 측면

6. 29 선언문에서 저자가 제안하는 정책은 문법적 평가 요소를 통해 긍정적

으로 나타난다.16) 다음 부사어들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저자의 긍정적 해석을 보여준다. 다음 ST27의 “더욱”이라는 비교 표현은 긍정적 강도를 높이는 감정적인 강조어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ST28에서 저자는 자신의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을 “꽃피우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은유적으로 미화한다. “꽃피우다”는 저자가 자신의 장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데올로기적 표현이기도 하다.

ST27: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KH27: ...human dignity must be respected **more**....

KT27: ...human dignity should be esteemed **more highly**...

ST28: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KH28: ...I am confident these ideas coming out of my love for the nation **will bloom**.

KT28: I firmly believed that this proposal **will be translated into action**...

ST는 번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KH27은 ST27의 “더욱”을 “more”(더욱)이라는 부사로 번역해서 원래의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한다. 그런데 KT27에서는 원문을 “more highly”(더욱 더)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변형은 원문에서 나타나는 저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중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KH28에서는 “bloom”(꽃 피우다)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번역하면서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옮긴다. 반면 KT28은 원문을 “will be translated into”(옮길 것이다)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원문의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지 않는다. ST 저자의 긍정적인 평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ST에서 공통적인 언어 전략은 저자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자기 합리화이다. 저자는 ST의 “겸허한” 과 “우국충정에서 나온”이라는 형용사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도덕적인 애국자라는 자아 표상을 만든다.17) ST29에서 정치인으로서

16) 평가 요소는 “부사, 형용사, 동사등을 포함하는 문법 구문에서 나타난다”(Fairclough 2003: 172).

의 마음을 수식하는 평가어로 “겸허한”이라는 표현은 저자가 정치인으로서 윤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평가어이다. 긍정적인 평가는 ST30의 “우국충정에서 나온”이라는 표현에서 보다 강력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나라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과 동일시한다. 이 표현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애국자로 부각시킨다.

ST29: 겸허한 마음으로...

KH29: I now humbly present these ideas...

KT29: with a humble mind...

ST30: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KH30:these ideas coming out of my love for the nation

KT30: (생략)

ST29의 “겸허한”은 KH29에서 “humbly”(겸허하게)로 번역되고 KT29에서 “humble”(겸허한)으로 번역되어서 원문의 긍정적 평가는 그대로 전달된다. 반면 ST30의 “우국충정에서 나온”이라는 표현은 KH30에서 “my love for the nation”(나의 애국심)이라 번역되어서 원문에 나타나는 국민이 신뢰하는 애국지사로서의 거창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KT30은 ST30을 완전히 삭제하여서 원문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를 무화한다.

저자는 당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어로 묘사한다. 다음 ST31의 “빛나는”이라는 형용사는 5공화국의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평가는 저자가 전두환 대통령의 오랜 개인적, 정치적 동료로서 의리를 지키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자가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17) 사람에 대한 평가어는 사회적 존경social esteem 과 사회적 허가social sanction로 나뉜다(Thompson 2004). ‘사회적 존경’은 개인의 행동적 특성에 관련한 표현이며, ‘사회적 허가’는 도덕 차원의 행위에 관련한 표현이다. 위의 ST에 나오는 예시어들은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긍정적인 평가어들이다.

ST31: 제5공화국 정부의 빛나는 치적...

KH31: The achievement by the Fifth Republic...

KT31: The other achievements of the Fifth Republic...

그런데 두 번역본 모두 “빛나는”이라는 평가어를 삭제하여, 원문의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완전히 무화한다. 이는 당시 5공화국 언론법 하에서 관제 언론 역할을 수행하던 두 영자 신문의 입장을 고려해보았을 때 매우 유의미한 결과이다.

반면, 저자는 자신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야당과 그 정책에 대해 강한 부정적 평가어를 사용한다. 다음 ST32에서 저자는 야당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어를 쓴다. 이러한 표현에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동시에 야당의 정책을 폄훼해서 저자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효과도 있다.

ST32: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KH32: If there is an opposition party going ahead with its own demands by resorting to violence,...

KT32: If there is an opposition party seeking to realize its goals even by means of violence,...

그런데 번역본에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다르게 번역된다. KH32에서는 원문을 “its own”(그들 자신의)라고 번역해서 원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평가가 전달되지 않는다. KT32에서도 원문을 “its”(그것의)라고 번역함으로써 원문에서 강조되었던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생략되었다.

표현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저자는 어휘와 문법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치관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민주적이고 훌륭한 정치가로 자리매김한다.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재현한다. 이에 대한 두 번역본의 번역 결과는 다음과 같다.

	KH (<i>The Korea Herald</i>)	KT (<i>The Korea Times</i>)
이데올로기 반영	25, 27, 28, 29	26, 29
이데올로기 삭제	26, 31	30, 31
이데올로기 변형	30, 32	25, 27, 28, 32

표 5. 표현적 가치의 이데올로기 번역 양상

번역 결과,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삭제하는 양상에 있어서는 두 번역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코리아 헤럴드가 원문의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반영하고, 반면 코리아 타임즈 번역에서는 원문의 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변형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페어클러프의 비평적 담화 분석을 연구 방법으로 6. 29 민주화 선언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탐색하였으며,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영자 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와 코리아 타임즈에서 번역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를 세밀히 분석하고자 페어클러프가 제시한 담화의 3가지 형식적 특징인 경험적 가치, 관계적 가치, 표현적 가치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처럼 담화를 형식적 특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은 자칫 하나의 상황을 각각 독립적으로 나누어 간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텍스트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탐구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되었다.

6. 29 선언문을 경험적인 가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저자는 담화 속에서 자신의 미래 정책을 정당화하고, 국민의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여 지지를 유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 선언문의 담화는 대중에 영합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저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특징을 함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표현적인 가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이 선언문에서는 평가 요소를 지니는 언어를 사용해서 야당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면 저자의 정책과 정치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훌륭

한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6. 29 선언문은 ‘민주화’를 위한 독재 정권의 항복 문서라기보다는 정권 연장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인 연설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두 가지 영자 신문에서 다르게 번역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두 영자 신문에서의 번역을 3가지 양상으로 분류하여, 이를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 완전히 삭제되어 무화되는 경우,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다른 의미로 변형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영자 신문 모두에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 변형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전반적으로 코리아 헤럴드가 코리아 타임즈보다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더 많이 삭제하거나 변형하였다. 반면, 코리아 타임즈가 코리아 헤럴드보다 원문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1987년 언론 통제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부의 홍보를 목표로 하는 영자 신문지의 제작 조건을 감안했을 때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문장의 어휘와 문법 분석을 통해서 번역 양상의 빈도를 분석한 본 연구 방법은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이데올로기적 변형의 원인이나 효과를 밝히는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번역 과정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분석과 번역자 개인에 대한 인지적인 연구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 관해서, 1987년 당시 두 영자 신문사에서 이 연설문을 번역했을 때, 초벌 번역에 대한 번역 지침과 교열 감수 과정에 대한 지침, 그리고 최종 번역본에 대한 신문사의 방침 등에 관한 연구가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미비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심 분석과 더불어 번역자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번역에서 개인의 의도성이나 임의성 여부를 밝히는 것은 번역에 나타난 이데올로기를 엄밀하고 실제적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6. 29 민주화 선언문의 영자 신문 번역 양상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경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29 민주화 선언문은 국민의 동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과거의 정치 연설문으로서만이 아니라, 번역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현재의 연구 대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a)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9(2): 7-43.
- 강지혜 (2008b) 「번역에서의 인용의 문제」, 『번역학 연구』 9(4): 7-40.
- 고영근 외 (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관.
- 김영명 (1999) 『고쳐 쓴 한국 현대 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 노태우 (1987)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 서울: 을유문화사.
- 박소영 (2007) 「다국어 미디어 텍스트 생산의 새로운 층위로서의 번역에 대한 CDA적 접근」, 『통번역학연구』 11(1): 31-52.
- 손구선 (1992) 「불발로 끝난 전두환, 노태우의 내각제 구상」, 『세계와 나』 38: 108-116.
- 송연석 (2013) 「제도적 번역으로서의 외신번역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부와 언론사간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종묵 (2002) 「제5공화국의 대언론 홍보정책에 관한 연구: 6. 29 선언을 전후한 언론정책과 보도태도」, 『언론과학연구』 2(2): 79-114.
- 어수영 외 (1987) 「평화와 전쟁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사회과학논총』 7: 59-82.
- 이원표 (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 전수진 (2006) 「영어신문 뉴스룸 조직의 특성과 보도내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독도 영유권 분쟁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석 (1990) 「80년대의 한국 언론」, 『한국 신문 방송 연감』, 서울: 한국 언론 연구원.
- 최성희 (2013) 「뉴스위크 번역을 통한 식민 담론의 전복」, 『번역학 연구』 14(1): 355-387.
- 홍순일 외 (2003) 『한국 영어신문사』,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Butt, D., S. Spinks & C. Yallop (2003)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Sidney: Macquarie UP.

- Chilton, P. (2004) *Analysing Political Discourse*, London: Routledge.
- Choi, J. (2013) 'Discourse Analysis on the Originals and Translations of Speeches by the 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4(3): 7-37.
-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New York: Longman.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Arnold.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London: Routledge.
- Kang, J. (2004) 'Evaluation of South Korea in News Media Translation: A Critical Perspective', *Discourse and Cognition* 11(1): 1-30.
- Kang, J.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 (2): 219-242.
- Kang, J. (2010) 'Positioning and Fact Construction in Translation', In M. Olohan & M. Calzada-Perez (Eds.) *Text and Context*. London: St. Jerome.
- Kim, Young Shin (2003) 'Translator's Mediation in Ideological Issues – A Critical Approach to 'News'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4(2): 175-190.
- Loupaki, E. (2010) 'Investigating Translator's Strategies in Rendering Ideological Conflict: The Case of News Translation', In Christina Schäffner and Susan Bassnett (Eds.) *Political Discourse, Media and Translation*,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55-75.
- Pecheux, M. (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New York: St. Martin's.
- Richardson, J. E. (2007) *Analysing Newspapers: An Approach fro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ampshir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aid, E. W.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chäffner, C. (1997) 'Strategies of Translating Political Texts', In Anna Trosborg (Eds.)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19-143.

- Schäffner, C. (2012) 'Unknown Agents in Translated Political Discourse', *Target*, 24(1): 103-125.
- Thompson, J. B. (1984) *Studies in the Theory of Ideology*,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 Thompson, G. (200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 van Dijk, Teun A. (1996)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Caldas-Coulthard, Carmen Rosa and Coulthard Malcolm (Eds.) *Text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84-106.

부록

ST: 노태우 대표 특별선언, 한국일보 1987년 6월 29일

(19)친애하는 국민여러분! ...

(9)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각료의 대다수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25)민주, 책임 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 **(1)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선제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15)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3)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8)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27)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26)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 도 단위 지방의회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14)생각됩니다...**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12)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32)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10)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11)이를 위해 모든 市民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2)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 환경 속에 **(5)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국민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16)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29)결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30)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각하와 민주정의당 전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28)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추가사항들이 (13)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대표 위원 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23)밝혀두는 바입니다...

(21)국민 여러분!

제5공화국 정부의 (31)빛나는 치적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아니한 현시점에서 국론이 (4)분열되어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당하는 국가적 수치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18)우리 모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간직한채 청년은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농민은 (6)안심하고 일하며...

조상과 선열의 (7)뜨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를 땀과 자제와 지혜로 훌륭히 가꾸어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국민적 슬기를 (17)한데 모아 주실 것을 (24)바라마지 않습니다...

(22)국민여러분!...

TT1: "Text of Roh's proposal", *The Korea Herald*, 30 June 1987.

First, (9)rival parties should revise the Constitution to provide fo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the parliamentary system, under which the cabinet, whose majority are Assemblymen directly chosen by the people, can be most faithful to (25)democratic and responsible politics based on autonomy and openness, and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Maximum (1)fairness should be guaranteed in the election management with regard to election campaigns...

Groundless personality attack and popular instigation, must not be permitted under the direct election system in order not to flare up enmity, (15)create unrest and disorder, fuel regional rivalry, and as a result threaten national stability and hampe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its genuine sense...

we have to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3)unity by removing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not only in the political circle but also in other areas...

The present presupposes the past. But at this point, a **(8)historical watershed**,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laugh aloud...

Fourth, human dignity must be respected **(27)more**, and each man's basic rights must be promoted to the maximum...

Sixth, the **(26)autonomy** of all social sectors must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The expansion of each sector's autonomy will promote balanced social development and thus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development...

Despite the procedur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local councils should be assembled as scheduled. **(14)I think** the creation of local councils at city and provincial levels must be studied and realized soon...

Seventh, **(12)we** have to create a political atmosphere for dialogue and compromise while protecting sou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If there is an opposition party going ahead with **(32)its own** demands by resorting to violence, the ruling party cannot make concession after concession...

(10)we must promote drastic social reforms to create a bright and clean society....

To guarantee a happy life for the people, **(11)we** have to crack down on gangsters, robber, thieves and others threatening citizens' life. We also have to severely deal with chronic **(2)corruption** in our society... **(5)In** such a stable social environment, all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with pride and animation.

(16)With the people's desire **in mind** for continuous development, not a cut-off in history, and awed by history and the people. I now **(29)humbly** present these ideas today...

Not only with the support of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and DJP members but also of the people, I am confident these ideas coming out of **(30)my love for the nation (28)will bloom**...

When my ideas are accepted, **(13)I will put forth** additional details...

If these are rejected, which I do not think is likely, **(23)let me make it clear** I will resign from all of my public offic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candidacy of the DJP and the DJP chairmanship...

(31) The achievement by the Fifth Republic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Now that the Olympics are not far off, all of us are responsible for staving off the shame of being der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of **(4)division** in national opinion...

While retaining a sacred right to vote, **(18)youths should** work hard to realize their ideals, workers and farmers should have **(6)stable jobs**, and entrepreneurs should double

their creative efforts while politicians should map out the future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It was built with the (7)warm blood of our ancestors...

(24)Let's show the world that our history is developing, not by going backward, but

(17)by pooling the wisdom of the nation so that we can contribute to world history...

TT2: "Text of Statement by Roh TW", *The Korea Times*, 30 June 1987.

(19)Fellow citizens,...

(9)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sed into a system led by a president directly elected by a consensus as soon as possible,...

...the government mechanism under which most Cabinet members are legislators elected by the people and faithful to (25)democratic politic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based on autonomy and openness...

The elections should be managed in a fair and (1)just manner both during stumping and voting and counting of the ballots in accordance with the new presidential election act...

...fuel antagonism by means of mass agitation which (15)will result in disturbances and disorder or arouse an unfavorable sense of localism to engender the stability of the nation and do harm to the development of a genuine democracy,...

...we have to gain reconciliation and (3)grand union by removing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 the political arena and all other segments of our society,...

But I believe it important to offer an epochal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celebrate at this moment- (8)a turning point in our history...

...human dignity should be esteemed (27)more highly an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extended to the highest degree,...

...principle of autonomy and (26)self-rul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fullest extent in all social sectors,...

Despite the amendment, local assemblies should be formed as scheduled and (14) the election of assemblies for special cities and provinces should also be studied and promoted expeditiously,...

a political climate of dialogue and compromise should be promptly established with sou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fully (12)guaranteed,...

If there is an opposition party seeking to realize (32)its goals even by means of

violence, the ruling party will not always make concessions...

Eight, **(10)bold social purification** measures are needed to build a bright and clean society....

To ensure that all citizens enjoy happy, comfortable lives, all elements disturbing daily life such as hooliganism, robberies and thefts, and all chronic **(2)irregularities and absurdities** remaining in our society, **(11)must be cleaned up**...

All citizens will then live bright lives with pride and **(5)ease** under a stabilized social atmosphere....

(20)Dear fellow citizens,...

I am hereby presenting this proposal with a **(29)humble** mind fearing the judgment of history and the people, and **(16)on the basis of** your wishes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nation....

I firmly believed that **(30)** this proposal **(28)will be translated into action** with the support of the President and all members of the Democratic Justice Party and all people of the country as well....

When my basic proposal accepted, details **(13)will be worked out immediately**...

If the above proposal is turned down, **(23) I hereby declare** that I will resign from all public positions...

(21)Dear fellow citizens,...

(31)The other achievements of the Fifth Republic,...

We all share the responsibility to avoid the national shame that will fall on us in international society if public opinion is **(4)split**...

(18)I would like to urge the youths to increase their capabilities to achieve their ideals, workers and farmers to work with a **(6)comfortable** mind,...

This country is our own. It is the duty of this generation to develop this country, sanctified with **(7)the blood** of our ancestors, with sweat, self-restraint and wisdom and pass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with pride...

(24)We have to show the world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does not retreat but progresses and **(17)** we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the world....

(22)Dear fellow countrymen,...

[Abstract]

Translation Shifts in Political Ideology of “The June 29 Declaration”Choi, Sung He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anslation shifts in political ideology reflected in the discourse of the June 29 Declaration issued in 1987 by Roh, Tae Woo, the 13th president of South Korea. It identifies the text's ideological linguistic strategies using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ramework. It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English translations of the text related to political ideology. It utilizes the Korean text which was featured in the *Han Kook Ilbo* (ST). The parallel English texts selected for analysis were presented in *The Korea Herald* and *The Korea Times*. Analysing the political discourses, this study focuses on Fairclough's three types of value in the formal features of the language: experiential, relational, and expressiv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ffectively provides the essential framework for revealing how precise components of language continuously steer people's ideas toward the existing order of political discourse, and how the translators mediate such ideological marker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iscourses reflect the author's intention to gain support from the people while reaffirming the ruling party's political ideology. The findings suggest that a lot of the ideological shifts occur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demonstrating that the translators eliminate, reproduce, and transform ideological aspects of the ST. *The Korea Herald* shows heavier elimination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ST than *The Korea Times* while *The Korea Times* shows heavier reproduction of such ideology than *The Korea Herald*.

▶ Key Words: June 29 Declarati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ranslation shifts

최성희

고려대학교 영문과 강사

pauline7@korea.ac.kr

관심분야: 비평적 담화분석, 대중매체 번역, 정치 이데올로기 번역

논문투고일: 2014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